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4년 8월 16일 (금)

---(음력 7월 13일)---

Пятница

16 августа 2024 г.

№ 32 (12099)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사할린에서 광복 기념 행사는 해마다 개최된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친애하는 여러분!

8월 15일은 한민족의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소비에트 병사들은 한민족의 지원으로 한반도를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후 곧 사할린과 쿠릴열도에서도 일본군의 저항도 격파되었고, 9월 2일에는 일본이 항복에 대한 각서에 서명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가 성취되었습니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된 수많은 사할린한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들에게 새로운 고향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사할린한인들은 집을 짓고, 자녀들을 키우며, 다른 민족의 대표자들과 함께 경제와 사회 분야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군사작전 지역에서 러시아의 적들과도 용맹스럽게 싸우고 있습니다. 동포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한민족의 해방의 날을 맞아 사할린한인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강건함과 행복과 형통을 기원하며 광복절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정부

Дорогие друзья!

15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советские войска при поддержке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освободили Корей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от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Вскоре после этого было сломлено сопротивление императорской армии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И уже 2 сентября Япония подписала акт о капитуляции. Так была поставлена победная точка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 Тысячи корейцев, принудительно завезенных на Сахалин, не смогли вернуться домой. Наш регион стал для них новой Родиной. Здесь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строят дома и растят детей. Вместе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других народов развивают экономику и социальную сферу. Доблестно сражаются с врагами России в зоне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Горжусь, вами, земляки!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 всей души поздравляе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Днем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Желаем крепкого здоровья, счастья, добра и всего самого лучшего!

С праздник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주지사, 기자회견 가져

8월 15일(목) 오후 3시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이날 주내 주요 매체들의 기자들이 주지사에게 학교들에서 새학기 시작과 관련된 질문을 비롯해, 주지사 지방 출장, 사할린주 경제개발 5년간 프로그램, 아나와 등대 등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하였다.

주지사는 9월 1일 전통적으로 사할린의 한 학교의 '첫 종소리'행사에 꼭 참석할 예정이라고 답했고, 학교에는 애국심에 관련 교육과정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주에 지방 순회 출장을 마무리한 주지사는 가는 곳마다 주민들과의 만남을 가지며 이를 통해 지방자치체들의 문제점을 알게 되면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임 자리에서 제시했다. 특히 사회복지, 보건 등 사회적 문제해결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현재 사할린에서 의료 인력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다고 전하며, 현재 의사 100명, 간호사 약 200명 정도로 부족하지만 사할린 전체를 보면 비교적으로 이 숫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또한 직접 '건강 가이드(안내자)'기획을 주지사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 이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통해 주내 주민들이 의료기관을 쉽게 이용하고, 제때에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사할린주의 향후 경제발전을 이야기하며 주에 심해항 2개를 공사하는 것, 물류 제반시설 구축, 해양 및 항공 운송, 최신 기술을 이용하며 최고급의 내진 활주로 건설 등에 대한 계획을 간단히 소개했다.

그는 현재 사할린주가 투자로는 러시아에서 4위에 있다고 전하며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현재 투자의 다수가 수소산업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이날 그는 '아나와'등대가 드디어 사할린주의 소유로 돌아와서 이 유산을 잘 보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면, '저렴한 생선'기획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3면에 계속)

단신

광복 기념 다양한 행사 개최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사할린에서는 해마다 한반도의 해방 기념과 관련해 여러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사할린 주한인회가 주최하는 행사는 전통적으로 8월의 세번째 토요일에 개최되고, 올해는 8월 17일(토요일) 정오 12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가가린공원 '코스모스'경기장에서 개최된다. 프로그램에는 '에트노스' 아동예술학교와 예술단체들의 공연, 즐거운 경기, 요리교실(비빔밥, 짬뽕 등), 북공연이 준비되고, 태권도와 씨름대회도 열린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림종환)에서는 8월 18일(일) 정오 12시 스타로둡스코예 마을 해변가에서 광복절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곳에서 역시 예술단체들의 공연, 활동교실과 오락놀이 등이 펼쳐진다.

8월 24일(토)에는 사할린한인연합회(회장 김홍지)와 '사할린한인'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회장 천영근)가 공동으로 제3회 '라면'축제 겸 광복절 기념행사를 연다.

9월1일까지 사할린의 모든 교육기관들 새학기 맞을 준비

올 신학기를 맞는 학교들의 준비 문제가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주재한 정부 회의에서 의제로 올랐다. 9월 1일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계획 구역인 루고워에 30호 학교가 새로운 현대식 건물의 문을 연다. 또한 쉬코탄섬의 크라스노자보르스스코예 구역에서는 110석의 유치원이 개원되고, 사할린 지역에서 17개 학교들이 수리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에는 152개의 학교와 176개의 유치원, 13개의 중등 직업학교, 53개의 보충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고, 이들 교육기관 중 75%가 새학기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으며, 남은 교육관에서는 조만간 수리작업이 완료된다.

사할린, 2만7천 톤 연어류 어획

8월 13일(화)을 기점으로 사할린 지역 수산업체들의 태평양 연어류 어획량은 2만6,900톤에 달했다. 수산업체들은 송어 2만3,500톤, 연어 1800kg, 네르카(홍연어) 1,266kg, 키주치(은연어)는 220톤을 어획했다. 수산청의 정보에 따르면 2024년 사할린주에서 태평양연어 어획량은 2022년 대비 21.6%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일주일 만에 어획량은 1만700톤이 증가했다.

쿠르스크와 벨고로드 지역을 위한 인도적 지원 물자 300kg 수집

사할린주에서 열린 <오스트로와>청년포럼에서 '우리 함께'활동의 일환으로 쿠르스크와 벨고로드주 주민들과 특수군사작전 지역 참전자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물품 300kg을 모았다. 인도적 물품 수집에 사할린의 적극적인 주민들과 주내 기업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스트로와> 청년포럼 진행자들도 관심을 갖고 필요한 물품들을 수집했다.

8월 15일, 사할린 우리말 방송국 20주년 맞아

20년 전, 2004년 8월 15일 '사할린'국영텔레라디오방송국의 우리말 방송 첫 TV방송이 시작되었다. TV방송 기획은 '사할린'국영텔레라디오방송국의 조선어 방송국(1956년 설립, 1991년부터 '우리말'방송국으로 개칭, 라디오 방송은 2009년부터 중단)에서 추진했다. 김춘자 우리말 방송국장은 "우리말 TV방송국 꿈은 1990년 1월에 사할린방송국-서울과 대구KBS를 연결하는 3각 구도의 위성방송을 통해 <사할린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을 때 처음 구상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방송국을 개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말 TV방송이 개국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10년간의 노력 끝에 2002년 초에 한국어, 일본어, 영어, 러시아어로 방송할 수 있는 허가증을 받았고, 고가의 장비와 준비 작업을 위한 스폰서를 찾는 데 2년 반이 더 걸렸다.

무엇보다도 한국어 텔레비전 방송의 시작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사할린 한인들의 역사에 있어 대단히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현재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에게도 획기적인 사건이다.

기성세대에게는 조국과의

만남이고, 젊은이들에게는 민족의 뿌리, 문화,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였다.

'우리말 방송'은 사회·문화적 주제를 다루는 TV 프로젝트이다. 첫 방송 이후로 에피소드의 내용과 방영 시간과 스튜디오 디자인, 크리에이티브 팀이 변경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사할린에서 한민족 문화 보전, 보급,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의 문제해결 방영, 인종 간 관용 확대의 문제를 방송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말 방송국은 현재 사할린에 위치해 있는 유일한 소수 민족 언어 방송국이다.

KTV 우리말 방송 프로그램은 사할린 국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사의 방송망에 포함되어 있으며 <24시 웨스찌(러시아)>채널에서 방영되고 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주당 4시간이 방송에 할당되었고, 2007년부터는 매주 2시간 30분씩 방송하고 있었으며, 이 중 30분은 자체 프로그램, 2시간은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TV 시리즈와 장편 영화를 방송했다.

현재 일주일에 20분씩 자체 방송을 하고 있다.

자체 프로그램은 '뉴스', '초상화',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의 오늘', '우리의 유산', '그런 것이 있었다', '역사의 수



레바퀴', '극복', '섬의 손님', '우리 한인의 이웃', '한국 요리 마스터-클래스' 등의 표제 아래 방영되고 있다.

방송은 사할린 한인의 비극적인 과거와 현대 생활의 현실, 사할린 및 해외 소식도 시청자에게 알리고 있다.

KTV '우리말 방송'은 디아스포라의 모든 문화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동양김나지야, 사할린 국립대학교 등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KTV의 '우리말 방송'은 4대에 걸쳐 사할린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해 일해왔다.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들에게 고국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고국의 뿌리와 문화로 돌아가는 길잡이가 되어 주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 한국어 방송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세계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



었다. 흐르는 시간은 새로운 세대의 사할린 한인들을 그들의 민족적 뿌리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따라서 방송의 주요 임무는 언어, 문화, 역사를 보전하는 것이다.

KTV '우리말 방송' 프로그램은 한민족 문화뿐만 아니라 사할린주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의 고유 문화를 보전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다민족 축제와 사할린 민족 디아스포라의 사회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정기적으로 소개된다.

언어와 한민족 문화를 보전하기 위해 KTV 우리말 방송국은 한국의 인기 가수, 사할린 및 한국의 예술가, 미술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 사할린 축제와 한민족 노래자랑대회를 10회 개최했다. 또한 한국의 유명 연예인들이 참여하는 공연도 10회 이상 개최했다.

그리고 라디오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라디오 경연과 문학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창

의력을 발휘하도록 독려했다.

우리말 방송의 사회활동에서 또 다른 중요한 기획은 코르사코브 망향의 언덕에 일본 식민지배의 희생자를 기리는 망향의 탑을 세우는 것이었다.

우리말 방송국 언론인들은 수많은 국제 및 사할린 언론대회에서 상을 수상했다.

언론인들은 교육과 촬영을 위해 수차례 한국을 방문했고, 현재 우리말 방송국에는 4명이 일하고 있다. 김춘자 국장 (러시아 연방 문화 명예근로자, 대한민국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 고문, 러시아 언론인 연맹 사할린 지부 이사회 위원, 국제 및 기자콩쿠르의 수상자 등), 이복순 기자 (번역가, 방송 진행자), 돈초브 알렉산드르 카메라맨, 자부소와 왈렌티나 편집자다.

우리말 방송 20주년을 맞이하는 김춘자 국장과 이복순 기자가 '당신들에게 우리말방송은 어떤 방송인가?'란 질문에 답변했다.

김춘자 국장은 "저에게 우리말 방송국은 40년을 바친 세월이자, 의미있는 삶의 시간이었습니다."라고 모든 것을 축약해 간단히 답했다.

많은 취재를 해온 이복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우리말 방송은 단순한 미디어가 아니라 사할린 한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와의 통합을

촉진하는 동시에 역사적 고국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문화적 가교입니다. 우리말 방송국에서 25년 동안 일한 것은 저에게 개인적으로나 직업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문화와 언어의 수호자이자 전달자가 되었고,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할린 한인들 사이에서 한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켜 미디어 공간에서 그들의 존재감을 보장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제 목소리와 이야기가 우리 지역 사회의 도전과 성취를 반영하고, 사람들에게 듣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말 방송국에서의 장기간 일하는 동안 사할린 한인 공동체의 특성과 민족의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이해는 물론 사할린의 다른 민족들의 특성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저의 직업적 자부심이고, 만족의 원천이자 지속적인 성장과 자기개발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새고려신문사는 20주년을 맞이한 우리말 방송국에게 축하드리며, 응원하고, 앞으로도 한민족의 문화 보급과 동포들의 소식을 전달하는 데 큰 성과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배순신 기자)
(사진: 우리말 방송국 제공)

이모저모

사할린에서 북방소수민족 원주민의 산업과 수공업 축제 진행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 7회 <살아있는 전통> 북방소수민족 원주민의 민속 예술 산업과 수공업 축제가 8월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되었다. 축제는 밝고 화려했다. 사할린의 예술단과 하바롭스크 변경, 사하공화국, 야말로-네네츠크 자치구에서 초대된 귀빈들이 방문객들에게 공연을 펼쳤다. 또한 장식 및 수공예 작품의 장인들이 축제의 12개 경연 부문에서 우승을 위해 경쟁을 했다.

"<살아있는 전통>과 같은 이러한 행사 개최는 분명, 다양한 민족 그룹들과의 사이에 경험을 교환하도록 촉진하고, 젊은 세대에게 전통의 보전과 계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사할린주 문화·고문서사업부 논나 라브리크 장관이 말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народных промыслов и ремесел КМНС

С 10 по 11 авгус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 течение двух дней проходил VII Областной фестиваль народны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промыслов и ремесел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Живые традиции».

Фестиваль получился ярким и красочным. Перед гостями выступали сахалинские артисты и приглашенные гости из Хабаровского края, Республики Саха (Якутия) и Ямало-Ненецкого автономного округа. В то же время мастера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боролись за победу в 12-ти конкурсных номинациях фестиваля.

«Проведение та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как «Живые традиции», безусловно, способствует обмену опытом между различными этническими группами, подчеркивает важность сохранения и передачи традиций молодому поколению»,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7천 명 이상의 사할린 주민들, 세계 체육인의 날 기념

세계 체육인의 날을 맞아 7,500명의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시민들이 활기차게 기념했다고 시청 홍보부가 전했다. 사할린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방문객들이 활기찬 토요일을 보내기 위해 14개의 행사장에 모였다. 행사에 거의 모든 체육-스포츠 단체들이 참여했는데 방문객들을 위해 농구선수, 축구선수, 삼보씨름선수, 테니스선수들이 시연을 하고, 플로어볼(실내 하키)과 점프 훈련 경기, 스케이트보드 경기가 개최되었고, 볼룸데스(사교춤) 공연도 열렸다.

체육문화 및 스포츠국의 알렉세이 보젠코 국장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주민의 약 70%가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 이 체육활동을 위한 조건으로는 필요한 체육 재반시설을 가까운 데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아동 '두아틀론(듀에슬론)' 2종-스프린트 경기가 시작되어 '코스모스' 경기장에는 연령 3세부터 13세까지의 어린 선수들 105명이 모여 달리기와 자전거 경주에서 처음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였고, 경기 우승자와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메달을 수여했다. '코스모스' 경기장에서 열린 행사들 중 하나로 '사회적 체력단련'기획에 따른 체력 훈련이 진행되었다. 행사에 훈련사범들이 참가해 자신의 훈련에서 강점을 두는 요소들을 시연했는데 이는 관절 체조, 근육 풀기 댄스, 근력운동 부분이다.

또한 체육 및 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스포츠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시상식이 이뤄져 시행정부를 비롯해 사할린 주두마와 지역 스포츠부, 체육문화 및 스포츠청이 수여하는 감사장과 명예증서를 수상자들에게 전달했다.

Больше 7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отметили Всемирный день физкультурника

7500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ярко отметили День физкультурника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Об этом рассказа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эрии.

Жители и гости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ы собрались на

14 площадках, чтобы провести активную субботу. В мероприятии были задействованы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физкультурно-спортив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выступили баскетболисты, футболисты, самбисты, теннисисты, организовали матчи по флорболу, тренировки по джампингу, турнир по скейтбордингу, показательные выступления по бальным танцам.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физкультурой занимается порядка 70% населения. Условия для занятий есть: в шаговой доступности необходим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 поделился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по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и спорту Алексей Боженко.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центре дали старт детскому дуатлон-спринту «Дуатлоша». На стадионе «Космос» впервые силы в беге и велогонке проверили 105 юных горожан в возрасте от 3 до 13 лет.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получили грамоты и медали.

На одной из площадок на стадионе «Космос» прошла открытая тренировка по проекту «Социальный фитнес». В мероприятии участвовали все тренеры,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вшие те элементы, на которые делает акцент в своих тренировках. Это и суставная гимнастика, и танцы с разминкой, а также силовая часть.

Также состоялось награждение работников спортивной отрасли за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и развитие физ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Им вручили почетные грамоты и благодарственные письм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ород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минспорта, департамента по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и спорту.

사할린의 은퇴자, 러시아 도로 달리기 대회에서 최종 우승

트로이츠코예 마을 주민 블라디미르 스쿠드넵스키가 러시아 도로 달리기 선수권대회 남자(64세-69세) 부문 경기에서 우승했다고 아니와 시행정부가 전했다. 거리는 10km로 선수권대회가 야로슬라브주 리빈스크 지역에서 열린 가운데 국내 각지에서 연령 35세부터 84세까지의 수십 명의 육상선수들이 참가했다. 이 행사는 <파르메코 - 주요 도로 마라톤> 육상 기획의 단계로서 <위대한 빵의 길> 하프 마라톤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8면에 계속)

재외동포청,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무료 법률서비스 시행

국내 안정적 정착 지원...전국 25개 거주지 직접 방문해 상담도 진행
이상덕 청장 "동포들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했다가 정부의 영주귀국 사업으로 돌아온 사할린동포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무료법률 서비스를 시행한다.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출범 이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사업'을 총괄한다.

무료 법률서비스는 1990년대부터 영주귀국해 국내에 정착한 사할린동포 및 그 동반가족이 대상이다.

현재 경기도 안산을 비롯해 인천, 충남 아산, 강원 원주 등 전국 25개 도시에 2천900여 명이 영주귀국해 살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관련 서류 미비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 가족관계가 연결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불편함을 토로해왔다.

특히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고령의 동포들의 경우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동포사회는 정부에 실질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법무법인 덕수와 함께 무료 법률지원과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동일인 증명, 성본 변경 허가신청 등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덕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 친자를 확인하려는 동포에게는 기존 소비자가 대비 약 30% 할인된 금액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국적·출입국 등 국내 정착과 관련한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대상자들은 11월 30일까지 전화나 이메일, 구글 폼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은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동포들을 위해 전국 25개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할 예정이다.

이상덕 청장은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국내에 정착해 거주하는 사할린 동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재외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동포청 제공)

사할린, 1세 한인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 실시

올해 1세 사할린 한인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이 8월에 시작되었다.

지난 10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모인 어르신들은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내과의 의사의 상담과 약을 처방받았다. 그리고 이날 1세대 어르신들은 치매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체험

하고, 운동요법도 익혔다.

올해 건강관리 프로그램 대상에는 1세 어르신만 아니라 1946년생 사할린 한인들로 확대되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사할린주한인협회와 사할린주청년한인회가 한국 보건복지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지원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지사, 기자회견 가져

(1면의 계속)

그리고 정부가 주민들이 좀더 편하고, 살기 좋은 주택단지 마당, 공공이용소 개건 사업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본토-사할린 교량 건설에 관한 질문에도 답하였다. 그는 이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면에서 추산을 하는 중이고,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작별 인사를 하며 주지사는 필자에게 "곧 찾아가겠습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를 보러."라는 말을 했다. 이번 광복절 행사에 참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된다.

(취재: 배순신 기자)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물 / 전봉건

나는

물이라는

말을 사랑합니다.

웅덩이라는 말을 사랑하고

개울이라는 말을 사랑합니다.

샘이나 늪 못이라는 말을 사랑하고

강이라는 말도 사랑합니다.

바다라는 말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비라는 말도 사랑합니다.

또 있습니다.

이슬이라는 말입니다.

삼월 어느 날 사월 어느 날 혹은 오월 어느 날

꽃잎이나 풀잎에 맺히는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물

가장 여리고 약한 물 가장 맑은 물을

얼음인 이 말과 만날 때면

내게서도 물기운이 돌다가

여위고 마른 살갓 저리고 떨리다가

오 내게서도 물방울이 방울이 번지어 나옵니다.

그것은 눈물이라는

물입니다.

“비도 많이 내렸고, 후덥지근한 여름입니다. 25도를 넘긴 밤 온도. 열대야가 한달 가까이 지속되었지요. 대낮 온도는 34도에 육박했습니다. 너도나도 에어컨을 틀어 댄 덕에 아예 열섬 현상까지 더해졌지요. 서울은 아마 체감온도가 더 올라갔을 거예요. 솔직히 전 그렇게 더운 걸 모른 채 올 여름을 넘겼습니다. 무더위의 시작을 알고선 이미 5월부터,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었거든요. 더운 거라면 질색이라.

실내온도를 아예 시원하게 설정해 놓고, 최대한 외출을 자제했습니다. 읽고 싶은 책이 잔뜩입니다. 듣고 싶은 음악이며, 시청하고 싶은 영화 드라마가 제법 쌓였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지금 집필 중인 이야기에 골몰하고 싶었기 때문에, ‘2024년 여름은 적어도 내게 없다’ 이런 모드로 여름을 보냈던 거지요. 그렇게 보내다 지금은 암체처럼 휴가 중입니다. 물론 휴가지 숙소에서도 제가 원하는 온도를 설정한 채, 최대한 외출하지 않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딱 요만큼이니 이 정도의 온도가 나오는 거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새까맣게 다 타버린 지구를 떠올릴 때면, 다시 한 번 ‘이번 생은 기적’이라고 되내입니다. 낚시 장비를 잔뜩 트렁크에 챙겨 왔건만, 이 역시 덥다는 이유로 콘도에서 장비만 손질 중입니다. 이것도 스타일이라면 스타일일 지 저 역시 모르겠지만, 이 역시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책이 잘 읽힙니다.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겠지요. 물의 순환으로 지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간 참 순하게 잘도 흘러가네요. 해와 달과 별이 새삼 고마운 벌써 ‘끝여름’입니다.”

서울에서 허진원 작가



새고려신문 75주년 기념 사진 공모전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 맞아 본사는 사진공쿠르를 개최한다는 것을 알립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사할린 한인 역사>,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사진.

• **출품수:** 3점 이상

• **사진규격:** 1,000x1600 픽셀의 JPG/JPEG 형식 파일 (5mb 이하), RGB

• **공모기간:** 2024년 9월 15일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은 2024년 9월 27일. 우수 작품은 시상식에서 전시.

사진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십시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조직위원회

ОБЪЯВЛЯЕМ О ПРОВЕДЕНИИ ФОТОКОНКУРСА

В честь 75-летия "Сэ коре синмун"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фотоконкурса.

Тема "Моя корейская семья", "Истор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темы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Требования к работам: от 3-х фото, формат JPG/JPEG, размер 1000x1600 пикселей, объем не более 5 МБ, цветн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RGB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сентября 2024 г.

Лучшие работы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в газете, а также выставлены на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которая состоится 27 сентября 2024 г. .

Оргкомитет

새고려신문 창간 75 주년 기념

2024 한국어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공모 연장

2024년은 새고려신문 창간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쿠르(글짓기)를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우리 가족>, 그리고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랑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특히 올해 러시아에서 '가정의 해'를 기념하는 만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공모기간:** 2024년 9월 15일까지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시상식에 대한 정보는 차후 알려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문은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로 보내주시고 반드시 이름, 나이, 직업, 연락처 등을 적어주십시오.

문의전화: 8(4242)43-59-80, 43-72-94.

콩쿠르조직위원회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длении сроков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5-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присы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 (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15 сентября 2024 г.

Учащимс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удет выдан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Информация о награждении будет опубликована позже.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8(4242)43-59-80, 43-67-85..

Оргкомитет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оследний аккорд Второй мировой

79 лет назад советские войска начали операцию по разгрому японской Квантунской армии.

Это стало финальной наступательной операцией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Квантунская армия насчитывала около 1 млн человек. Токио использовал местных полевых командиров, а также резервистов и японских переселенцев, проживавших в Маньчжурии.

За две недели все эти силы были полностью разбиты полтора миллионной советской армией под командованием маршала Василевского. Уже к 14 августа японцы были разделены на «котлы» и потеряли связь со своим командованием и в тот же день японский император объявил о капитуляции, а 15 августа об этом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в Корее.

18 августа Василевский отдал приказ о высадке двух стрелковых дивизий на японский остров Хоккайдо, но позже операцию отложили по указанию Ставки.



19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в Мукдене красноармейцы-десантники взяли в плен императора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Маньчжоу-Го Пу И, а уже 2 сентября Япония капитулировала.

Разгром Квантунской армии имел огромное значение для завершения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Это была важная сухопутная группировка японцев, уничтожение которой ускорило поражение и безоговорочную капитуляцию Японии и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Сайт Коре сарам)

Поддержание жизни, здоровья и долголетия

10 августа 2024 г.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медицинские работники провели проверку состояния здоровь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Для них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профилактике болезни Альцгеймера, ЛФК, физиопроцедуры и общий осмотр врача-терапевта, сообщает Телеграмм-канал Корейский Телеграф.

В этом году программа, которая ре-

ализуется РООСК и РМООСК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ого Фонда РК, была расширена. Получателями поддержки стали не тольк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1-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о и люди пожилого возраста до 1946 г.р.

Список получателей поддержки будет постепенно расширяться, сообщают организаторы.

(Наш корр.)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шахматный турни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и Шахматная федерац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10 - 11 августа провели турнир среди шахматистов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по быстрым шахматам.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борьбы за шахматной доской определились 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ёры в различных номинациях. На этот раз впервые главный приз завоевал Виталий И (И Ги Су). Ему вручили кубок победителя от ЮСМООК, медаль, грамота и денежный приз. Второе место занял Дмитрий Ден, третьим впервые стал Алик Син, отсесив на 4 место Алика Лим. Среди женщин награду получила Александра Тен (Тен Ми Сун). В группе ветеранов впервые победителем стал Максим Ри (Ри Ян Чун). Среди школьников впереди оказался Ярослав Под-



ковыров, вторым стал Михаил Ан. Все победителям и призерам были вручены медали, грамоты и денежное вознаграждение. Были поощрены и те, кто остался в шаге от призового места.

Лим Ден Хван,
председатель ЮСМООК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ЮСМООК)

На Сахалине снимают документальный фильм об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ах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ы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нтон Дока и Сергей Ха начали работу над документальной картиной об истории появления и жизни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Сахалине. Они уже отсняли часть материала, взяли интервью у ученых-историков,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различ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для съемок в фильме создатели ищут героев, которые смогут по личным воспомина-

ниям рассказать об истории своей семьи, о том, как оказались на Сахалине, об учебе в японской или корейской школе, о гражданстве, о поисках родственников в Корею и на Сахалине, поделиться своими мыслями о репатриации и т.д. Давайте поможем запечатлеть историю и жизнь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 всем вопросам связываться по телефону 8 (924) 283-72-06 (Сергей Ха).

«Уримал Бансон КТВ» – 20 лет в эфире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15 августа исполнилось 20 лет единственной в России, да и в бывших республиках СССР, редакции телевидени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 «Уримал Бансон КТВ» ГТРК «Сахалин». Все эти годы небольшой коллектив работает очень творчески, ярко и интересно, рассказывает о жизни многих тысяч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которым выпала нелегкая судьба – оказаться в долгой разлуке с исторической Родиной.

Мост между прошлым и будущим

Так сложилось, что на Сахалине живет самая крупная в России корейская диаспора. Их принудительно привезли японцы, когда хозяйничали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XX века на южной части острова. А после освобождения островов советскими войсками десятки тысяч граждан Кореи из-за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проблем так и не смогли вернуться домой.

Коллектив, о котором пойдет речь, давно стал легендой региона, жители острова прекрасно знают его. Телевидение ведется на круглосуточном информационном канале «Россия-24» – на двух языках: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с внутрикадровым титрованием или дублированием.

А зарождалось корейское телевидение на Сахалине в 1990 году, после исторического телемоста для разделенных корейских семей. Именно тогда в прямом телеэфире между городам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еул и Тегу впервые после полувековой разлуки родители и дети, братья и сестры смогли увидеть друг друга.

«Без преувеличения могу сказать, что этот телемост перевернул жизнь корейцев, разделив на «до» и «после», – рассказывает руководитель «Уримал Бансон КТВ» ГТРК «Сахалин» Ким Чун Дя. – Семьи, разделенные полвека назад, общались в прямом эфире четыре часа. Разве можно описать тот эмоциональный накал в студиях на Сахалине и в Корею, когда родители не узнавали своих подростков детей, а те не помнили родителей? Без слез на этих людях смотреть было невозможно».

А позже журналист Александр Первозчиков создал фильм «Мост», рассказывающий о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ьях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Сахалина. Фильм привлек внимание глав государств к проблеме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стал толчком в решении вопроса их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Отметим, что телемост состоялся, когда между СССР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и еще не было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Тогда и родилась идея созд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корейского телевидения.

Четыре поколения

Первая программа проекта вышла в эфир в августе 2004 года. По словам Светланы Ким, это событие стало вехой в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сильно привезенных сюда японцами в годы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Для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это стало свиданием с Родиной, для молодежи – возможностью приобщиться к национальным корням.

Кор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давно переплелась с культурами других населяющих остров народов. На Сахалине любят корейские блюда, занимаются корейскими единоборствами, изучают язык, соблюдают традиции. И зрительская аудитория наших юбиляров не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олько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ой. Выход программы положил начало новому этапу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оссийским Дальним Востоком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Уримал Бансон КТВ» работает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уже четырех поколени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цы помнят сотни их сюжетов о людях в рубриках «Портрет», «Наше наследие», «Это было», «Колесо истории» и других. В ре-



дакции трудится бессменный коллектив сотрудников. Ким Чун Дя – руководитель, журналист, переводчик (отметим, что на острове у всех корейцев есть русский вариант имени, и поэтому ее обычно называют Светлана Ким); телеведущая Ри Бок Сун (Ольга Ри); оператор Александр Донцов и монтажёр Валентина Забусова. Настоящие мастера слова с твердой позицией, не терпящие штампов и банальностей.

Женщина мира

Основатель и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дакции «Уримал Бансон КТВ» Ким Чун Дя работает в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и «Сахалин» с 1986 года. Для нее телевидение на корейском – мечта, ставшая явью. Заслуженны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РФ, член президиума Сахалин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имее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е награды. Более четверти века она отдаёт себя общественной работе в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е. За вклад в женское движение многократно награждалась благодарностями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женщин и семь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онда корейских женщин,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нее очень памятна еще одна награда. В 2000 году Светлана Ким стала призёр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курса за радиопрограмму «Слёзы возвращения» в KBS (широковещательная телерадиокомпания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Старшее поколение корейцев никогда не забудет её голос в эфире.

Рассказывая о своих героях, сотрудники редакции вспоминают бабушку Кан До Сун, которая репатрировалась в Корею, но каждый вечер плакала по детям и внукам, оставшимся на Сахалине. Предоставленные на родине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не смогли сгладить её горькой тоски. В итоге женщина вернулась к детям на остров. Как оказалось, таких корейцев здесь живёт немало. На Сахалине тема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неисчерпаема и будет болезненной всегда. Время отдаляет от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рней каждое новое поколение. Для молодых телевидение на корейском остаётся верным проводником в мир родной речи и культуры.

Жизнь продолжается, колесо истории продолжает крутиться. И редакция «Уримал Бансон КТВ» чутко реагирует на все события, оставаясь верной принципам качественной журналистики, стараясь отвечать на запросы своей многотысячной аудитории.

От всего журналист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поздравляем коллектив редакции корейского телевидения с юбилеем! Желаем новых творческих достижений, успехов во всех начинаниях, благополучия и праздничного настроения!

Президиум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Союза 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редакцией
"Уримал бансон КТВ")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Оппозиция бойкотировала церемонию по случаю Дня освобождения

Оппозиционные партии, а также ряд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чтущих память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бойкотирова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ую церемонию по случаю 79-й годовщины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ига. Они провели отдельную церемонию в парке Хёчхан в центре Сеула, выступая против назначения Ким Хён Сока директором Музея независимости Кореи. Его обвиняют в прояпонских взглядах. Между тем,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Сила народа ранее заявила, что призывы к отставке Ким Хён Сока и бойкот официальной церемонии – это не более чем политический манёвр с целью ослабления значения Дня освобождения.

Дух борьб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охранится навсегд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сделает всё возможно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охранить дух борьбы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страны, а также наследие, оставленное борцами за свободу.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Юн Сок Ёль, выступая 14 августа на обеде в бывшем президентском комплексе Чхонвадэ, на который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ригласил более ста потомков борцов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ого колониального ига. Он пообещал приложить все усилия для построения мирной и процветающей страны. Среди участников обеда была обладательница серебряной и бронзовой медалей Парижской Олимпиады по дзюдо Хо Ми Ми. Она родилась в семье корейца и японки, а в 2021 году отказалась от японского гражданства. Она является потомком в пятом поколении борца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Хо Сока. На обеде присутствовали также более 30 потомков борцов за независимость, которые приехали из США, Китая и Казахстана.

XXXIII летние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завершились

XXXIII летние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проходившие в Париже в течение 17 дней, завершились 11 августа красочной церемонией на стадионе «Стад де Франс» в Сен-Дени, пригороде французской столицы. В Игра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10.500 спортсменов, представлявших 205 национальных олимпийских комитетов, а также спортсмены из команды беженцев. Они вели упорную борьбу за 329 комплектов медалей в 32-х видах спорта. Первое место в медальном зачёте заняли США, завоевав 40 золотых, 44 серебряные и 42 бронзовые медали.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Китай, у которого 40 золотых, 27 серебряных и 24 бронзовые медали. Южнокорейские спортсмены заняли восьмое место, выиграв 13 золотых, 9 серебряных и 10 бронзовых медалей. 32 медали – это второй результат после Олимпиады 1988 года в Сеуле, когда страна-хозяйка Игр завоевала 33 медали. Национальный Олимпийский комитет ставил перед командой, 144 участника которой участвовали в соревнованиях по 21 виду спорта, скромную цель выиграть 5 золотых медалей. Однако команда превзошла все ожидания, повторив рекорд, установленный в 2008 году в Пекине и в 2012 году в Лондоне. Спортсмены со всего мира попрощались друг с другом, пообещав встретиться через четыре года в Лос-Анджелесе.

КНДР отказалась от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мощ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справится с ликвидацией последствий наводнений без внешней помощи. Вместо этого около 15.400 жителей пострадавших районов провинций Пхёнан-Пукто, Чагандо и Янгандо будут доставлены в Пхеньян, где они будут находиться в течение следующих двух-трёх месяцев, которые потребуются для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их домов. Как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об этом заявил лидер КНДР Ким Чен Ын, который 8-9 августа посетил уезд Ыйчжу-гун провинции Пхёнан-Пукто, больше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пострадавший от наводнения. «Уход за детьми и их образование - это основны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дела, от которых нельзя отказываться ни в какой чрезвычайной ситуации», - заявил Ким Чен Ын. Это был второй визит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в пострадавшие от наводнения регионы. Ким Чен Ын назвал сообщ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МИ о серьёзном ущербе от наводнений «выдумкой» и «политически мотивированной лживой пропагандой». Он заявил, что жители пострадавших районов «в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здоровы». Ким Чен Ын поблагодарил зарубежные страны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за предложенную помощь, пообещав восстановить ущерб собственными силами.

С 1 по 10 августа экспорт РК вырос на 16%

По данным Таможе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 период с 1 по 10 августа южнокорейский экспорт составил 15 млрд 500 млн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16,27% бол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Зарубежные поставки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увеличились на 42,1%, автомобилей - на 63,9%,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 на 5,5%. При этом экспорт машиностроительной продукции снизился на 10,6%. Экспорт в Китай вырос на 10,7%, а в США на 27,7%. Южнокорейский экспорт растёт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10 месяцев подряд. Импорт за первые 10 дней августа вырос на 13,4%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составив 18 млрд 400 млн долларов. Дефицит торгового баланса – 2 млрд 900 млн долларов. **RKI**

В Москве провели круглый стол «Корейцы в семье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Ким Моисей,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ООК, культуролог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ООК), Московское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ООК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осковского Дома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МДН),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новостей ИНФО Караван,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провели 8 августа 2024 года Круглый стол «Корейцы в семье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посвящённый 160 – летию доброволь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Он прошёл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МДН «Межнациона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в истории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ярких и богатых вкладов в поли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страны внесли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корё сарам). За 160 лет с периода доброволь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в Россию у этого народа сложился уникаль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опыт. С ростом общемировой популяр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нельзя не отметить значение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емье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Они стали составной частью единой российской нации, сумевших сохранить свою самобытность, традиции, накопленный опыт и передавать это последующим поколениям российских граждан корей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Цель мероприятия –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историю вхождения в российский социум корейцев через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доблестный труд, испытания и достижение высоких целей, добившихся видного места в семье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и каково их будущее.

К участию в Круглом столе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ФНКА и московск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щин, учёные, преподавате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научно — эксперт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МИ,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и все, кто интересуется данной тематик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ая поддержка осуществлялась теле и радиоканалами, СМИ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щин, газеты и сай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Корё сарам, ИНФО Караван,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гресса этножурналистов «Культура мира».

Участников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приветствовал директор Московского Дома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Сергей Ануфриенко и основатель Московской школы №1086 с корейским компонентом образования, заслуженный учитель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доктор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наук Нелли Эм.

В качестве модератора мероприятия выступил Ким Моисей Ирбемович, член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пр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бюджетном учреждении города Москвы «Московский до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культуролог,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Комиссии п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е Совета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Москвы. Открывая Круглый стол, Моисей Ким отметил, что корейцы России проводили такие юбилей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ённые 140 и 150-летию доброволь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корейцев в Россию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Учитывая сложные современные геополитические противоречия и конфликты, решено было провести в этом году данное событие в рамках планов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акие планы в регионах успешно выполняются. В Москве состоялись несколько важных проектов, посвящённых истории и судьбе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их места в столице России – Москве. Особо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участников не ограничиваться рассмотрением истории, преодолением трудностей и фактами высоких достижений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Более ценно сейчас обсудить, как строить наши цели и задачи на фундамент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зни с начала пребывания нас в «русских пределах».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какое будущее нас ожидает. Что ещё сделать нам, чтобы войдя составной частью в единую российскую нацию, сохранить базовые национальные самобытность, традиции, обычаи и благополучно войти в единую семью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Выступили эксперты: Воронцов Александр Валентинович, кандидат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заведующий Отделом Кореи и Монголии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Тема: «Судьбы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удьбе России», Пак Александр Вячеславович, председатель Московск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Общ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Московского корейского



бизнес – клуба. Тем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их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едыстория, соврем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и перспективы», Шин Андрей Юрьевич, главный редактор Российской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службы «Корейское радио», Представитель 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овет ветерано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1950-1953гг. Тема: «Патриотизм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фронте и в тылу. Участие в СВО».

Александр Воронцов говорил о значении судьбы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судьбе России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акие бы не были трудности и испытания в стране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месте с другими народами преодолевали их. Как переселившись в Россию они трудились во благо новой Родины, а когда требовалось, то защищали её с оружием в руках в Первую мировую войну и во время Гражданской войны и интервенции 1918 – 1922. В годы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1941 – 1945 корейцы мужественно сражались на фронте и героически трудились в тылу... Корейцы внесли огром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науки, образования, медицины,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Славные дела российских корейцев вошли в историю достижений страны через выдающихся учёных, писателей, предводителей производства 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деятеле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медицины, спорта.

Александр Пак акцентировал внимание на то, что переселившись в Россию корейцы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ли в создании социально-бытовых условий на новом месте: строили жилища, дороги, школы, больницы, церкви, мельницы, лавки, клубы, читальни. При этом появлялись деловит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и мастера-ремесленники. Каковой сложной не была жизнь переселенцев и в более поздние времена, способность эффективно работать, получать высокие результаты труда, 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ая жилка всегда присутствовала у российских (советских) корейцев.

Андрей Шин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на присущий корейцам патриотизм, способность трудиться и сражаться с полной отдачей во благо новой Родины, будь это Российская империя,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или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Огромна была помощь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в освобождении Кореи от японских захватчиков и во время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1950– 1953гг. С первых дней СВО корейцы активно восприняли патриотический долг по защите Отчизны и стали прямыми участниками СВО. Среди них много героев, награждённых боевыми наградами, к сожалению есть также погибшие и раненные. Андрей Шин сам как участник СВО всё это пропустил через себя, поэтому всячески помогает, нередко и сейчас сопровождая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к местам боевых действий.

Далее выступили специалисты, руководители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обще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ворческ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и, СМИ, ветераны корейского движения. Среди них Феликс Ким, Владимир Ногай. Юрий Московский, Токтамысов Жаке, Маргарита Ким, Галина Цай и другие. Видеообращение послал президент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й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ибири (АКОДВС), члена Правления ООК Бейк Ку Сен.

Выступил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й ансамбль Гымган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Людмилы Ли. Завершилось мероприятие дружеским чаепитием

(Источник: сайт Корё сарам)

22 августа в РК пройдут учения по гражданской обороне

22 августа в РК пройдут общенациональные учения по гражданской обороне, в ходе которых будут отработаны действия населения в случае воздушных налётов. Как сообщили 7 август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учения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с 14:00 до 14:20. В этот период население должно будет эвакуироваться в подземные убежища. В качестве убежищ используются подвалы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станции метро, подземные парковки и торговые центры. Их расположение доступно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портале по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а также в приложениях Naver, Kakao и TMAP. Метрополитен,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е, авиационный и морской транспорт, а также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во время учений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в обычном режиме. **KBS World**

К 1 сентября все сахалински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будут готовы начать новый учебный год

Вопрос подготовки школ к началу учебного года подня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большинств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приемка уже завершилась.

— Ко Дню знаний все школы должны встретить детей чистотой и порядком. Ремонт и уборку необходимо завершить до конца августа,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Подарком ребятам и учителям к 1 сентября станет открытие нового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пуса школы №30 в Луговом — планировочном район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кже распахнет свои двери детский сад на 110 мест в Крабозаводском, на Шикотане.

В 17 школах на островах сегодня завершаются ремонтные работы. На особом контроле — школа №6 в Корсакове, а также школы в селах Восток Поронайского района и Чехов — Холмского. Главы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заверили, что все материалы доставлены, ремонт будет закончен до 1 сентября.

— При приемк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вопросам безопасности. Оцениваются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ая и противокриминальная защищенность объектов, противопожарная безопасность, соблюдение требований охраны труда. Кроме того, здания должны быть доступны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иями по здоровью. Проверяется также организация школьных перевозок. В каждой школе должны быть кадры, исправный транспорт и продуманные маршруты,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работают 152 школы, 176 детских садов, 13 организаций средн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53 учрежд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75 процентов из них уже готовы к новому учебному году, остальные завершат эту работу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олее 100 молодых ученых будут развивать науку в СахалинТех

Первые девять ученых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осквы, Томска приступили к работе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Специалисты создают лаборатории, посвященные новой энергетике, искусственному интеллекту, экономике Мирового океана, беспилотным авиасистемам. Будущее островной науки с учеными обсуд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пережающими темпами возводят кампус СахалинТех. Сдать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комплекс должны в 2026 году, но уже сегодня оборудуются передовые лаборатории и привлекаются специалисты.

— Мы не делаем акцент на том, чтобы привезти ученых с материка. Мы нацелены на то, чтобы привлечь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определенному профилю. В приоритете для нас — сахалинцы, которые хотят заниматься научными исследованиями на благо родного региона. Усилить сахалинскую науку будем лучши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нашей страны. Специалистами, которые останутся у нас на долгие годы, а не уедут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лет,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Как рассказал ректор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Александр Самардак, всего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ть 40 научных лабораторий, где будут реализовывать свои амбициозные проекты более 100 ученых. Половину из них планируется привлечь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Они будут заниматься исследованиями, преподавать студентам и формировать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которые сделают выпускников востребованными на рынке труда.

Молодые ученые создают неуязвимые беспилотники в рамках передовой инженерной школы «Инженерия островов». Этот центр науки и образования призван решать задачи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всей страны в разных областях, включая новую энергетику, водородные и «зелёные» технологии, комплексные системы безопасности,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ИИ).

Заведующей лабораторией по управлению регионом на основе ИИ стала Эльвира Мартынова из Москвы.

— На Сахалине есть уникальные проекты, которые нельзя реализовать в Москве или в другом месте. Например, проекты, связанные с морем, с добычей рыбы, анализом данных для морских регионов. Здесь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одить исследования, заниматься наукой и защитить диссертацию. Поэтому я сразу откликнулась на предложение о работе, — поделилась Эльвира.

Ученые в лаборатории ИИ занимаются сбором и анализом данных и автоматизируют различные процессы, чтобы максимально упростить их для человека. Губернатор предложил использовать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к примеру, для прогнозирования серьез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на основе генетических данных и анализа образа жизни.

— Нам неинтересна наука ради науки. Неинтересны абстрактные задачи, оторванные от жизни. Технологии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и разработки в других научных областях должны работать на благо людей,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Электротехническую лабораторию возглавил Валентин Чехонин. Он работал в электросетевом хозяйстве, руководил лабораторией на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участвовал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проект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ЭС в Бангладеш.

— Я больше практик, чем кабинетный ученый. Наша лаборатория в СахалинТех будет оказывать сервисные

услуги для бизнеса, в том числе для нефтегазовых проектов. При этом мы обеспечим базу для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работы, конструкторских разработок, стажировки студентов. Я уверен, что ребята, которые учатся и будут учитьс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е,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ту редкую практику, которая востребована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 считает ученый.

Автоклуб привезет праздник в отдаленные и малочисленные села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лучила первый автоклуб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Культура». Передвижной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поступил в Смирныховский район. Мобильная концертная площадка позволит проводить досугов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малочисленных и отдаленных селах, где нет стационарных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 задачу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отдален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сделать жизнь людей интереснее и ярче. Именно для этого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едера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мы приобрели автоклуб. Смирныховский район стал первым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м, где появился передвижной 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Установленное в нем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зволит на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проводить концерты, в том числе с участием артистов из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а также устраивать кинопоказы, — отметила министр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нна Лаврик.

Автоклуб, созданный на базе автобуса ПАЗ, доставлен из Нижегородской области. Грузовой отсек автобуса в торцевой части оборудован распашной дверью для доступа мобильного сценического подиума. Также установлены крепления для размещения звукового, светового и мультимедий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Концертная площадка на колесах сможет без привлеч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перевозить творческие группы. Пассажирский отсек оснащен сиденьями для артистов и ящиком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визита.

— В нашем районе 14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шесть из которых не имеют учреждений культуры. Это малочисленные села, в которых проживает всего 117 человек. В самом маленьком из них, селе Кошевом, всего пять жителей. В основном это люди пожилого возраста, которые не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и посещать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Кроме тог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нет здания дома культуры в селе Первомайске, оно сгорело в 2017 году. Там проживает более 450 человек. Автоклуб позволит организовать выездное культурн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сель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жителям заниматься творчеством, участвовать в досуговых, 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х, развлекательных программах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 рассказала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Ольга Мельников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едется приемка концертного автобуса. После муниципальный отдел культуры составит досуговую программу, и уже в сентябре автоклуб отправится в первый тур по Смирныховскому району.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ходит масштабная работа по ремонту, реконструкции и оснащению культурных учреждений в рамках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Культурная среда» нацпроекта «Культура». За пять лет на островах построено шесть новых домов культуры,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ны — 16, а число посещений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озросло на 65% в год.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запланирован ввод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дома культуры в селе Соловьевка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Завершается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в Детской школе искусств города Макарова, преобразается по современным стандартам Малокурильская библиотека-филиал № 1 в селе Малокурильском. Продолжается оснащение музеев: Долинский историко-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получил новое свет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до конца года оборудование также получит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ый комплекс «Побед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До конца октября в Невельском районе очистят русла ручьев и рек, угрожающих наводнениями

Ликвидация последствий ЧС в Невельском районе стала одной из главных тем рабочего совещания, которое про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радавши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 Невельск, Горнозаводск и Колхозное — возвращаются к обычной жизни. Власти прикладывают максимальные усилия, чтобы люди получили необходимую материальную помощь.

По данным администрации Невельского района, пострадавшими после циклона признаны 88 домовладений и 199 огородов. Большинство владельцев уже получили компенсации. Сегодня в очереди на выплаты остались всего 10 семей, обратившихся за помощью в конце прошлой недели.

После паводк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округа оказались затоплены 29 подвалов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жилых домов.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полностью осушены 28, в одном помещении продолжают восстанавливаться работы. Большинство затопл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образования и культуры уже вернулись к нормальному графику работы. В Невельске на территории школы осталось закончить уборку завалов после сошедшего селя, учебный год

здесь начнется в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й срок. Также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в городе откроется детский сад, подвал которого был затоплен во время паводка. Непростая ситуация сложилась в детском саду села Горнозаводска, где во время подтопления пострадало вентиляцион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находившееся на цокольном этаже. Решается вопрос по его ремонту и переносу в более безопасное место.

В Невельске полностью восстановлено сообщение на муниципальной дороге по улице Сельской, где произошло обрушение полотна и был заблокирован проезд к 6 частным домовладениям.

Глава региона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ставил вопрос о своевременной подготовке к чрезвычайным ситуациям.

— Каждый год реки засоряются, вода накапливается и разливается. По-хорошему, необходимо следить за состоянием водоемов. Дерево упало — пригнали трактор и вытащили. А не ждать, когда будет беда, чтобы потом составить смету на очищение русел. Надо с главами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продумать этот вопрос, привести водоемы в порядок по области,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Невельском районе эту работу уже начали. Комиссия обследовала реки и ручьи округа и выявила наиболее опасные.

— Выявили пять водных объектов, наиболее критичных с точки зрения затоплений и завалов. Это река Невельская в городе Невельск и ручей без названия на выезде, река Казачка в Колхозном, река Амурская в Амурском, река Лопатинка в Горнозаводске. По обращениям граждан обнаружили еще два потенциально опасных водных объекта. На 14 августа намечен очередной выезд, чтобы дообследовать водоемы и проверить выполнение текущих работ.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м готовятся документы для получения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из областного резервного фонда. Согласно протоколу, срок выполнения работ — 21 октября,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экологии 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Саматов.

Напомним, режим ЧС в Невельском округе был введен после мощного циклона, обрушившегося на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3 августа. Из-за рекордных дождей и разлива рек начался паводок, затопило улицы, частные подворья и подвалы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Ситуацию осложнили сошедшие сели и оползни.

Почти 700 дворов и 2300 подъездов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вершается масштабная программа 2024 года по ремонту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подъездов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Итоги этой работы подве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заседа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апитальными работами в этом году охвачены 187 дворов. 42 из них уже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еще в 140 работы находятся на завершающей стадии. Объемы работ существенного нарастили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Кроме того,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дворы» ремонтируют еще 11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Как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талия Куприна, в большинстве районов работы идут в графике и должны завершиться к 1 сентября. Немного отстают Ногликский,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и Тымовский городские округа.

В большинстве муниципалитетов уже завершился текущий ремонт во дворах — сделали 656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из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678. Здесь привели в порядок проезды и тротуары.

Вышла на финишную прямую и программа косметического ремонта в подъездах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домов. В порядок на сегодня привели 2276 объектов. Работы будут продолжаться и осенью.

— Напоминаю всем главам районов: если хоть один человек скажет, что его подъезд забыли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поставлю вам неуд. Мы с вами договорились: ни одного неухоженного подъезд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оставаться не должн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делали 4000 подъездов, на этот запланировано — не менее 3000. Объем сделан большой. Продолжайте в том же духе,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е остается без внимания и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островных городов и сел. С участием федера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в этом году на островах создают 21 общественную территорию. Эти проекты стали победителям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В пяти районах области работы уже завершились. К примеру, в Смирных новый облик обрел парк «Мир». Здесь открылась библиотечная площадка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А в селе Рейдово Курильского района на месте пустыря благоустроили Сквер рыбаков и установили там детские игровые комплекс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ализуется также рег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Комплексные игровые площадки». Во всех районах должны обустроить 39 современных площадок.

Отметим, ремонт подъездов и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 важ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губернаторской программы «Забота. Защита. Уважение».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преобразование своего дома и двора можно, позвонив на горячую линию ЖКХ по номеру *0065 или обратившись к депутату своего округ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6-8 СЕНТЯБРЯ 2024 г. - ВЫБОРЫ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Ш САХАЛИН

ПАРТИЯ
**НОВЫЕ
ЛЮДИ**

**6-8 СЕНТЯБРЯ
ВЫБИРАЕМ
ГУБЕРНАТОРА!**



**Роман
ВЕДЕНЕЕВ**
КАНДИДАТ В ГУБЕРНАТОРЫ

ВРЕМЯ НОВЫХ!

새로운 사람들의 시대

БИОГРАФИЯ

- Роман Веденеев родился, вырос и живет на Сахалине. Более 8 лет отработал в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Окончил Сахалин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а позднее - Российскую академию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ы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В январе 2018 года Роман основал региональную обществен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Наш Сахалин», с которой реализовал ряд значимых для островитян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ектов.
- 8 сентября 2019 года Роман Веденеев избран депутатом Городской Думы гор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В 2022 году - избран депутат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Думы.
- С 2021 года Роман Веденеев возглавляет регион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партии «Новые люд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Женат и воспитывает двух сыновей.

이 모 저 모

(2편의 계속)

Сахалинский пенсионер стал чемпионом России по шоссейному бегу

Житель села Троицкое Владимир Скудневский пробежал первым на чемпионате России по шоссейному бегу в категории «мужчины, 64-69».

Дистанция составляла 10 километров. Отметим, что чемпионат прошел в Рыбинске. Его участниками стали десятки атлетов из разны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в возрасте от 35 до 84 лет.

Спортивное собы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рамках полумарафона «Великий хлебный путь», который, в свою очередь, является этапом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ого проекта «Фармэко — Бегом по Золотому кольцу».

아니와 해변에서 트라이애슬론 경기 개최

아니와 해변에서 전통적으로 <아니와 스프린트>철인 3종 경기가 열렸다고 이 지역 행정부가 전했다. 경기에는 연령 18세 이상의 80명이 넘는 선수들이 우승을 두고 경쟁을 치렀다. 철인 3종 경기 참가자들은 수영 700m, 자전거 경주 20km, 달리기 5km를 극복해야 했다. 경기의 참가자들은 개인전과 단체전에서도 경쟁을 했다.

행사 분위기는 경쟁심과 승부욕으로 가득했으며, 모든 참가자들이 감탄할 만한 높은 스포츠적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아니와 지역 홍보부가 전했다.

На берегу Анивского пляжа прошли состязания по триатлону

На берегу Анивского пляжа состоялись традицион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триатлону «Анива спринт».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района.

За звание лучшего конкурировали более 80 спортсменов в возрасте от 18 лет и старше. Спор-

тсмены преодолели 700 метров вплавь, 20 км на велосипеде и 5 км бегом. Участники триатлона соревновались как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так и в командном зачетах.

Атмосфера мероприятия была наполнена духом соревнований и стремлением к победе. Все участники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высокие спортивные результаты, достойные восхищения, добав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8월 17일 <박물관에서 왈츠 투어> 전통 행사, 사할린 주민들 초대

8월 17일(토) 사할린주 향토박물관 마당에서 제6회 전통 왈츠축제가 개최된다.

관람객들은 <앙가췌멘트(춤을 청하기)>경연과 무용단들의 공연을 볼 수 있다고 사할린 향토박물관과 공동으로 <사할린 무용의 세계> 사회활동 단체가 전했다..

<박물관에서 왈츠 투어> 축제 프로그램은 8월 17일 17시에 진행되며,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성인 무용단의 공연과 왈츠의 기교에 따른 활동교실도 열린다. 이번 왈츠는 한국과 스페인, 동양, 집시의 무용을 재해석해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앙가췌멘트>전통 경연대회로 행사를 마무리하며 우승 컵을 두고 모든 방문객들은 호감이 가는 준비된 무용수와 파트너가 되어 비엔나 왈츠를 추며 경연에 참가할 수 있다. .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традиционный праздник «Тур вальса в музей» 17 августа

В субботу, 17 августа, состоится шестой традиционный праздник вальса на открытой площадке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Зрителей ждет выступление танцеваль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и конкурс «Ангажемент».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движения «Сахалинский танцевальный мир» совместно с островным краеведческим музеем.

В программе праздника «Тур вальса в музей»,

который пройдет 17 августа в 17:00, – выступление взрослых танцеваль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из До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также мастер класс по фигурному вальсу. Такой вальс удивит зрителей интерпретацией коллективов корейского, испанского, восточного, цыганского танца.

Завершит мероприятие традиционный конкурс «Ангажемент», в котором сможет поучаствовать любая гостья праздника, станцевав венский вальс с подготовленным партнером за кубок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사할린에서 익스트림 오프로드 차량 경주 개최

사할린에서 RFC GS < 호랑이의 숲길> 경기에 익스트림 오프로드 차량 경주로 운전 실력을 점검해볼 수 있다고 '문화의 섬들' 포털이 전했다.

경기는 8월 20일(화)에 개최될 예정이며, 일반 차량과 특수 오프로드 차량으로 우승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 들 수 있다. 주최 측은 개인전과 추가 부문의 경쟁을 규정했으며, 우승자는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그랜드 파이널 오프로드 차량 경주 세계 선수권대회에 러시아를 대표해 출전할 권리가 주어진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세계 선수권대회는 12월에 개최된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йдут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вождению на экстремальном бездорожье

На Сахалине водители смогут проверить свои навыки вождения на экстремальном бездорожье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RFC GS «Тропой тигра».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портал «Острова культуры».

Состязания запланированы на 20 августа. Ворваться в конкуренцию за звание лучшего можно на стандартных и специально подготовленных автомобилях.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едусмотрели личный зачет 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номинации.

Победители получают право представлять Россию на чемпионате мира по офф-роуду RFC Grand Final Malaysia. Его проведут в декабре в Малайзии.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 107 руб. 83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бонус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Березка 2

Лужники

М²

Эконом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ак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 (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